

‘서울공화국의 탄생’ 과 ‘9·11’, ‘영웅만들기’ 를 되새김질하다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기적은 당신안에 있습니다》, 《대중독재의 영웅만들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부시의 정신분석》과 《102분》

광복 60주년과 맞물려서일까. 8월중순에서 하순에 이르는 기간, 한국 도시 형성과 발전의 과정을 담은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가 각 일간지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문화일보〉 등이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소상하게 전했다. 8월 22일자 〈한겨레〉는 “도시라는 ‘코드’로 해방 60년을 말하려는 필자의 이야기는 정사(正史)와 야사(野史)가 섞여 들어간 역사 ‘에세이’에 가깝다”며 “도시 개발의 당사자였던 필자의 개인 체험과 당대의 객관적 사실을 함께 녹인 것”에 주목했다. 신문은 “바로 이런 특성이 이 책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규정한다”면서 “1966년 제3한강교 기공식 때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강남 부동산 투기의 기원을 살피는 대목에선 강남 개발 초창기 행정 일선에 있었던 필자의 경험이 생생하게 드러난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빈민들의 삶터였던 무허가촌에 대한 ‘냉랭한’ 서술에선 도시행정가의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이 도드라진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도시개발의 여러 폐해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비판에도 다소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19일자 〈조선일보〉는 “1966년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가 착공됐을 때 이 다리가 ‘강남 신화’의 시초가 되리라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회고하며 “김상돈-윤치영-김현옥-양택식-구자훈 등으로 이어지는 서울시장들이 거대도시 서울을 캔버스 삼아 짓고, 부수고, 뚫고, 그러나간 그림들을 마치 할아버지가 구수한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재미있게 풀었다”고 책을 소개했다. 또 “당시 신문, 잡지, 소설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단순한 회고를 뛰어넘어 도시 형성의 배경도 짚어낸 점”도 높이 샀다.

8월 마지막주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은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인 재미교포 1.5세 이승복씨가 지은 《기적은 당신안에 있습니다》를 일제히 소개하는 한편, 그가 보인 ‘인간승리’의 삶도 자세하게 보도했다. 30일자 〈서울신문〉은 이승복씨가 “세계 최

고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슈퍼맨 닥터 리’로 통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내 단 두 명뿐인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자신의 스토리를 담은 책 출간을 기념키 위해 내한한 이 씨의 행적을 알리는 한편,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와 조국을 위해 1등으로 살고 싶었으며, 그 방법이 체조선수에서 의사로 바뀐 것일 뿐”이라는 그의 언급을 인용하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9월 3일자 〈경향신문〉은 《대중독재의 영웅만들기》를 평가하기에 앞서, “이순신은 ‘타고난 영웅’일까, ‘만들어진 영웅’일까”란 화두를 던졌다. 신문은 “영웅만들기는 서구에서 프랑스혁명과 나치 체제를 거치면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 전통적 영웅은 사라지고 누구나 영웅이 되고 창조된다”며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웅 숭배가 더욱 강조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책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있다.

신문은 특히 “대중의 심리를 포착하여 주술을 걸고, ‘홀리’의 정치학을 실천하는 것이 대중독재의 영웅숭배가 아닌가”라는 역자의 서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또 “유럽 중심주의적 비교사의 틀을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서구 역사를 ‘엄혀있는 역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동서양 역사를 관통해 영웅의 명멸과 창조를 균형적인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서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대중은 즐겨 영웅담을 통해 역사를 소비한다고 했던가”라고 반문하면서 《대중독재의 영웅만들기》의 메시지를 캐고 있다. 신문은 “이 책은 대중독재 시대에 영웅 숭배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 그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며 “국민의 정체성 형성에 이들 대중 영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철저히 규명한다”고 성격을 파악했다.

9월 2일자 〈한국일보〉는 일본 작가 데라야마 슈지의《책을 버리고 거리로 나가자》에 각별히 주목했다. 저자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일본 문단의 반항아로 당대 젊은이의

우상이라고 소개한 이 신문은 “그의 작품은 일관되게 상식을 전복하며 무묘한 일상을 거듭하는 소시민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 책은 수필집이면서 역설적이면서도 멋지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처세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래 한 자락에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유행가형 인간이 야말로 정말 강한 존재”라거나, ‘정의란 낙관적인 정치용어’일 뿐이라는 이야기들을 거침 없이, 그럴 듯하게 쏟아내 놓는 저자는, 자신이 원작을 쓰고 연출까지 맡았던 여러 연극과 영화에서처럼 신나게, 자유롭게, 쾌기있게, 누가 시키는대로가 아니라 창의롭게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같은 시기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국민일보〉 등은 데이비드 하비가 지은 《에펠》을 또한 크게 다뤘다. 〈한겨레〉는 “구스타프 에펠과 에펠탑을 둘러싼 당시 상황들을 통해 탑의 건설과정이 전통과 공학의 미학 논쟁 과정이었음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평했다. 〈동아일보〉는 “지금은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도 그것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온갖 드라마틱한 사연이 담겨 있음을 보여 주는, 즉 무생물의 건축물 역사를 통해 삶이라는 생명을 들여다보는 책”으로 묘사했다.

〈한겨레〉는 특히 ‘전통 미학에 어긋난 추물 공학이 논란 거쳐 미학으로’란 것을 달아 《에펠》이 전하고자 하는 건축학적 담론을 자세하게 전했다. 신문은 “건축물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역사로 남게 하고 그 자신도 역사가 되는 일은 흔치 않다”며 프랑스와 파리의 상징물인 에펠탑을 그런 흔치 않은 분명한 사례로 꼽았다. 신문은 그러나 “에펠탑이 단순 기념물이 아니라 애초부터 과학실험 공간으로 기획돼, 에펠이 탑 완공 이후에 탑의 효율·실용성을 적극 확장하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책에 소개된 두 에펠의 이야기는 ‘철’ 성분의 근대 건축공학에 대해 제국의 시민들이 열광하고 당황했던 시절, 공학이 술한 논쟁과 상징을 불리일으키며 미학의 가치로 자리잡기 시작했던 시절, 그러니까 낯선 것의 도전이 익숙한 현재의 것으로 모습을 갖춰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위인으로 묘사되는 에펠의 인간적 면모와 모순, 결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건 좀 아쉽다”고 꼬리표를 달았다.

추석이 임박하던 때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거의 대부분의 주요 종합일간지들이 ‘바람의 딸’ 한비아의 세계 긴급구호 현장 보고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에 아낌없이 지면을 할애했다.

9일자 〈국민일보〉는 “한비아의 긴급구호 여정은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잠비아, 이라크,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네팔, 팔레스타인 그리고 쓰나미 태참사가 일어난 인도네시아까지 모두 93개국에 달한다”고 고단하면서도 결코 예사롭지 않은 저자

의 프로필에 밑줄 그었다. 신문은 “‘긴급구호’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은 어느덧 현장에 가 있다”는 저자의 심경을 전하면서,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는 그의 말을 빌려 책의 메시지를 갈음하고 있다.

이 즈음 세인의 기억에 생생한 것은 역시 9·11테러다. 이를 틈타 출간된 《부시의 정신분석》과 《102분》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런 일이기도 하다.

〈경향신문〉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의 행동을 이해하려거든 국가안보전략NSS 대신 프로이트를 먼저 읽어라”는 슬라보예 지젝의 말을 빌어 책의 성격을 표현했다.

서평자는 부시와 부시 행정부의 행태를 ‘정신분석학적’으로 감정한 책의 시각을 충실히 인용하고 있다. 특히 신문은 본문을 인용, “부시는 세상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이분법으로 분열된 유아기의 세계관을 유지한 채 세상을 선과 악의 싸움, 흑백논리로 본다”며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그는 타인에게 불안을 투사하고, 테러공격 등 외부에 우리를 노리는 적이 있다며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 자신은 선의 대리인으로 남으려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뉴욕타임스 기자인 짐 드와이어 등에 의해 기록된 9·11테러 당시의 순간을 되살려낸 책 《102분》을 각별히 조명했다. 신문은 “희생자 126명을 포함한 당시 주인공들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102분’ 간의 사투는 마치 나 자신이 잿더미와 시신이 비처럼 쏟아지는 세계무역센터 안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전달해준다.”고 긴박했던 그 순간을 인용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이 책은 무엇보다 세계 최대 도시 뉴욕의 재난 대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파고든다.”고 설명하면서 “9·11테러 같은 극한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지에 관한 ‘법칙’을 탐구하며, 특수한 상황에서 이성과 본능이 어떻게 치명적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지난 한달간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나이를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추악한 중국인》 《아케이드 프로젝트》 《2020 미래한국》 《그 여자의 자서전》 《마음을 유혹하는 경제의 심리학》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비행선, 매혹과 공포의 역사》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세계화 이후의 부의 지배》 《화성, 또 하나의 지구》 《서기 3000년》 《그런데 소년은 눈물을 그쳤나요》 《고구려의 역사》 《기록한 테러》 《나의 육필 까세집》 《식탁위의 쾌락》 등도 주요 서평 테마로 다루었다. ☞

〈출판저널〉 편집부